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인생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간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중헌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이태복

## 달고 요만한 그림상 (금요집회) -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 제4장 천국의 비밀 (3)

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무리들만이 따르는 한 사람으로 오시  
었다(사 53:1-2). 로마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직업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로 놀  
랄 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삶과 사역은 충분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속아서 안 된다. 장차 구약의 예  
언대로 '그 날' 이 되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눈에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마치 딱 반쯤 그랬던 때 반쯤으로 가득 채워지듯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결코 헛되이 좌  
절되지 않을 것이다.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마 13:44-46)는 논리적으로 거저씨와 누룩의 비유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거저씨와 같고, 한층의 누룩과도 같다.  
그러나 비록 그 형태가 보잘것없어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비유들  
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초라한 모양으로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모든 귀중한 소유물을  
능가할 만한 엄청난 가치를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큰 가  
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취할 만큼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다.  
오해하지 말자.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마 20:14-16). 하나님의 나  
라는 은혜로운 선물이며 보상으로 얻을 수 없는 진리이다. 그 값이 엄청나다. 이 땅 위  
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부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막 10:21, 눅 14:26). 그 비유  
이 얼마나 소중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바다에 던지는 그물의 비유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더한 한 번 확증해 준다. 어부야 그물  
을 끌어올리고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 가  
운데 예기치 못한 형태로 임하였을지라도 결국에는 최후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  
께서는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구별해내실 것이며 악을 말하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그물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진리이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 분리! 그것은 세상 끝에 임할

마지막 심판에 속한 일이다(마 13:49).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세상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묘사해 준다. 심판의 날이 오기  
까지의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함께 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  
사회의 구조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되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기까지 그대로 진행된다. 가  
라트 유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안에 끼여 있지 않았던가! 이것은 옛날 일이 아  
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일이고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의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패역한 인간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지 않았던가(행 20:29-30)!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이방인들이 바로 우  
리 교회 안에 계속 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밭 잘 고쳐 주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되 처음에는 썩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나..."(막  
4:26-29)라는 비유는 거저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 초점이 있지 않다(고전  
15:36-38). 이 비유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설명해 줌 뿐이  
다. 한 알의 씨는 그 자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능가자는 일은 생명의 땅에서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씨앗 안에 있던 생명과 기도의 기운이 합하여 썩어 움트고 이삭이 패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다. 하나님께서 즉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성경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셨다. 우리의 책임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나리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  
의 노력이나 기술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생  
명 자체로 인하여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다. 추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사  
람들 가운데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오고 있다. 마치 땅에 뿌  
린 작은 씨처럼 임하시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반격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시들고 툭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생명을 부어준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를 받는 축복의 비밀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감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동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조용히 역사하지만, 그 때에는 모든 죄와 악을 이 땅에서 끌어버리시는 큰 권능과 영광으  
로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다.

가끔씩은 새벽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은근슬  
쩍 핑계를 대고 싶기도 하다. "꼭 새벽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다른 시간에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  
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서 들었던 말들이 우리의  
그런 핑계를 거들어주기도 한다.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에만 있다며! 한국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목회님이 이른 새벽에 물 떠놓고 복을 빌  
던 옛 습관을 좇게 바뀌서 새벽기도를 만들었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정말 새벽기도  
는 안 해도 되는 게 같아만 느껴진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와 보자.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그렇다. 새벽기도의 기원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전 날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시고 늦은 밤까지 방자들을 고치시느라 여  
념이 없으셨던 주님! 너무 피곤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시지도 못했을 것만 같은데도, 주님은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다. 이런 사  
실을 깊이 생각해보면, 복이 우리가 이른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게 된다. 새벽기도는 결코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  
는 성도의 자발적이며 즐거운 순종이다.

우리가 자주 원하는 찬송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께 댈기 원하리니'(505장). 정말 소원의 소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  
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도 예외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어떤 모습은 달고 어떤 모습은 무시해줄 수는 있는 것  
을 수 없다. 주님의 모든 모습을 닮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의 참 소원이다. 다  
윗은 고백하였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시 119:148). 우리에게

## 우리도 새벽에 잠이 깨는가? 월요새벽기도회, 요한복음 강해로 은혜 중에 진행

도 이런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는가? 새벽 미명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결한 곳을 찾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도 새벽에 잠이 깨는가?

특별히 우리는 월요일 새벽마다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책으로 꼽히는 요한복음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른 새벽에 우리  
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자. 특별히 모든 제자들은 힘써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도록 하자.  
우리 마음에 뛰어들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물리치고 '주님 때문에' 이른 새벽을 깨우도  
록 하자.

### "여름계절학교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금주, 7개 교회학교에서 여름계절학교 및 수련회 실시

| 부서/명  | 기간             | 장소     | 주최           |
|-------|----------------|--------|--------------|
| 영아부   | 16일(금)-17일(토)  | 영아부회실  | 거듭난 아가       |
| 청년1부  | 16일(금)-17일(토)  | 청년1부회실 | 거듭난 천국원로     |
| 청년2부  | 16일(금)-17일(토)  | 제1교관관  | 거듭난 천국원로     |
| 청년3부  | 17일(토)-18일(주일) | 베다니홀   | 영광도약을 위하여    |
| 신혼가정부 | 17일(토)         | 제1교관관  | 거듭난 천국원로     |
| 사랑부   | 17일(토)         | 사랑부실   |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
| 애반디부  | 16일(금)-17일(토)  | 제1교관관  | 새생명, 새사함     |

## PHILEMON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 and Timothy our brother, to Philemon our beloved [brother] and fellow worker, and to Apphia our sister, and to Archippus our fellow soldier, and to the church in your house: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Philemon 1:1-3)***

Philemon is the most personal of all Paul's letters, written during his first confinement in Rome. It is short, only one chapter, but filled with deep spiritual meaning concerning the practice of Christian love. The opening three verses disclose the special relationship that Paul had with a man called Philemon. Unlike Paul's other letters, where he usually identifies himself as an apostle or bondservant of Christ, in this one he purposefully calls himself a "prisoner of Christ". The reference back then was shameful, but Paul's use of it explained to Philemon his unique situation. He was a prisoner for Jesus Christ, and he was writing from prison in His service. We know a lot about Paul and his situation, but who was Philemon that he cared so much about him?

In today's Bible verses, Paul greeted Philemon as his "beloved brother," meaning his brother in Christ (v. 1). Philemon was a Christian, and Paul loved him just as Jesus commanded,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Jn. 13:34&35). As Jesus' disciples, they shared His love, so that even from prison they could communicate. Their relationship continued apart from one another just as Hebrews 13:1 says, "Let love of the brethren continue." The presence of God's grace in their hearts formed the bond that kindled their special relationship. Peter wrote, "Since you have in obedience to the truth purified your souls for a sincere love of the brethren, fervently love one another from the heart" (1 Pet. 1:22). Paul and Philemon's friendship certainly displayed the passionate love of two brothers.

Paul also called Philemon his "fellow worker," meaning his dedication to Christ was the same as Paul's dedication (v. 1). We know that Paul dedicated everything for Jesus. He endured hunger, beatings, stoning, and imprisonment all for Jesus Christ. As his fellow worker, Philemon also sacrificed everything for Jesus, like his body, wealth, and worldly connections,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 12:1&2). Fellow workers work together with Christ (2 Cor. 6:1) and fulfill their ministry (2 Tim. 4:5). Paul identified Philemon as his fellow worker, which means he was truly a disciple of Jesus Christ.

In his greeting and blessing, Paul's audience included Philemon's Christ-centered family, "and to Apphia our sister, and to Archippus our fellow soldier" (v. 2). Apphia was Philemon's wife, and Archippus his

son. Paul even addressed Archippus in his letter to the Colossians (Col. 4:17). Philemon's family inherited the gospel through his faith. His spiritual leadership as a husband and father resulted in a beautiful wife and son. These days, it is not easy to find a family like this. Divorce, separation, and alcoholism along with the worldly pursuits of money, success, and reputation tear families apart. During Philemon's day, there was much persecution and hardship involved with being a Christian, but Philemon's whole family remained Christ-centered. His sincere love for Jesus kept him and his family Christ-focused.

In addition, Paul's greeting and blessing included "the church" in Philemon's house (v. 2). Philemon opened his home for Jesus, like Mary, Lydia, and Aquila and Priscilla (Acts 12:12; 16:40; 1 Cor. 16:19). When Jesus told Peter,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He was speaking about the church that would start on the Day of Pentecost, and be based upon the divine revelation and profession of faith in Him through th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Mt. 16:18). Philemon's home served as a church for believers to come and go, day and night, to worship the Lord God. God's grace not only filled the heart, but also the home of Philemon.

Paul wrote this wonderful letter to Philemon to intercede on behalf of another beloved brother named Onesimus. Onesimus, a Roman slave, had stolen from his master, Philemon, and had run away. Eventually, he made his way to Rome, where he crossed the path of the apostle Paul, who led him to faith in Christ, "I appeal to you for my child Onesimus, whom I have begotten in my imprisonment" (v. 10). Now Onesimus was faced with doing his Christian duty toward his master by returning to him. Since death would normally have been his punishment, Paul asked Philemon to forgive him.

Philemon readily received Paul's letter, and forgave Onesimus. He sent him back to Paul, and Paul sent him to his hometown of Colossae to help build the church there (see Col. 4:9). Onesimus helped water the Colossian field and beautiful fruits grew. Why did this happen? It happened because of Philemon's loyal faith. He forgave his beloved brother because he truly loved others. He obeyed Jesus' new commandment to love one another.

As a prisoner for Christ, Paul humbly appealed to Philemon as his beloved brother and fellow worker. He emphasized their sameness in dedication, sacrifice, and loyalty. They were both God's children meant to do God's work. God's grace filled Philemon's heart and home. He was a Christian who loved others in obedience to Christ. He was a man whose genuine faith displayed great works for God's kingdom. 🙏

# 빌레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밋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밋 자매 압비아와 밋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킴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몬 1:1-3)



김성복 목사

바울이 로마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 쓴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짧아서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에 관한 깊고 신령한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세 구절은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맺고 있던 특별한 관계를 잘 나타내 줍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대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 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이런 표현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을 빌레몬에게 설명해 줍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섬기며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형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했던 빌레몬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릅니다(1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빌레몬을 사랑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 35).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과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밀접했기 있었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히 13:1)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22). 바울과 빌레몬의 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1절). 이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빌레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배고픔도, 매 맞음도, 돌에 맞음도, 감옥에도 기쁘게 감당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과 물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관계도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 2). 동역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고후 6:1),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딤후 4:5). 바울은 빌레몬을 그런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이는 빌레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빌레몬의 가족에게도 인사를 건넵니다. “자매 압비아와 밋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킴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2절).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아킴보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도 바울은 아킴보에 관해 썼습니다(골 4:17). 빌레몬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내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과 별거, 알콜 중독과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가 가족을 흩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의 가정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2절). 마리아와 루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빌레몬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행 12:12, 16:40, 고전 16:19).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교백을 기초로 하여 오순절에 시작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마 16:18). 빌레몬의 집은 오고 가는 신자들이 언제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빌레몬의 마음에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에도 충만했습니다.

##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아름다운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이 다른 형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가 간구하라”(10절). 이제 변화된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주인에게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가 받게 되는 형벌은 보통 사형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흔히 아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기쁘게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교향인 골로새로 보내어 그곳에 교회 짓는 일을 돕게 합니다(골 4:9). 오네시모는 골로새 들만에 물을 대어 아름다운 열매를 자라게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빌레몬의 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有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빌레몬의 마음과 가정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

## 안수집사 칼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되게 하소서

박승일 (안수집사 회장)

에셀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우리에게 일어났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또한 우리를 거둔다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변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었다!” (고후 5:17b).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안수집사회가 헌신되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좋아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헌신되자 주님의 도구를 온전히 사용되시길 원한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사역)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되기를 원하셨다. 주님을 좇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길 원하셨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주님은 거둒기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생명과 소망,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주님,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안수집사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을 알고는 모든 것을 버릴물로 버렸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참여코자 헌신했다. 이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배우기 위하여 필요로 한 안수집사회가 말씀을 배우고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영성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고 암송하던 것도 경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주님은 이를 책망했다.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배우고 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단죄 진 눈이 열리시길 원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길 원한다. 또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회를 갖고 있다.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지 못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기도회를 통하여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헌신하는 귀한 열매가 생령으로 말미암아 맺기기를 원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종인 사역에 온전히 헌신되 하소서.** 선교를 준비하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초대교회 집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 스테반 집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심지어 광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오직 한 영혼에게 전리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전신로 “가서 중언되라”라는 주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우리에게도 종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이는 주의 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귀한 사역에 안수집사들이 탐방으로 사역되고 있다. 국내에 있어 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애쓰고 순종하고 명목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와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언어를 준비하고 영성으로 무장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습들이 참으로 귀하다. 이 귀한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로 마음을 합하여 동역하며 기도로 역사하는 은혜와 생령이 충만한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주의 교회가 먹는 비용을 줄여서 선교에 헌신하는 만큼, 안수집사회도 함께 참여하고자 할 때 사역한 간사비를 없애고 전신로들을 훈련하는 교회화고 수련회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수집사회가 복음의 역사에 켜여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왔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종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소서.

200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은 돌아본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는가? 그리스도께 전하는 중언로 헌신되었는가? 주님, 올해 안수집사회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누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린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게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소서.

## 지난 수요일에 배시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마 3:11)

시는 분으로 증거하였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고 증거하였다.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지? 자신의 죄 때문에 사자를 지신 그리스도는 전할 양지도 못하고 영혼 한 방앗간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례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고 증거한다(마 1:3). 전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요 3:16). 우리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생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생령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悲哀할지 않은가? 세상의 영명은 좋아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며 거짓으로 외식하고 있지 않은가? 가물에 메마른 땅으로 축복이 적시는 단비처럼 생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절실히 필요하다(마 1:33). 그러므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여 한다. 생령의 기쁨의 영성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생령님과 관계가 있었다(요 3:34). 생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나”(요 14:16). 그렇다. 이 말씀대로 신자인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생령님이 거하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이다. 승천을 앞에 두고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도 제자들에게 생령이 부어지는 것이었다(행 1:5). 그렇다. 주님은 생령님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소서, 내가 바르게 살게 하소서!” 혹시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생령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게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나”(요 16:7). “내가 아버지께로 나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니 전리의 생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그렇다. 생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바로 사는 방법’을 증거하게 된다. 오직 길이지요 생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진부를 바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생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 - ‘예수께서 생령의 충만함을 얻어 오간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생령에게 이끌리시며’(요 4:1). 주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낫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미 생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생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졌다. 오직 생령에 이끌려 일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예수께서 생령의 권능으로 갈릴래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4:14). 그렇다. 생령의 권능이 역사하실 때 복음은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영혼들을 지옥과 사망, 죄와 사단에게서 건지낸다. 생령을 힘입을 때만이 약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생령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는가?

**사도들의 고백** -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며 배웠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생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생령을 받은 후 제자들의 사역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방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의 저를 들른 모든 사람에게 생령이 임하셨다. 고방울의 집에 들어갔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고백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나 하더라”(행 11:15-17). 놀랍다. 생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 제자들은 신적인 권능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생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철저히 깨어났다. 베드로가 섰던 한방은 무엇이었? 예수 그리스도와 생령에 관한 증거였다(행 10:38, 행 2:32). 예수님을 세 번까지 만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가 이제 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

**세례를 받은 자들** - 우리 모두는 생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전신로 전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받은 자는 나의 하늘의 일을 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나니’(요 14:12).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무엇인가? 전신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주님께서 생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종인의 삶으로 오직 생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삶이다(행 1:8). 생령님과 예수님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령으로 이루어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대하게 할 수 없다(고전 12:3).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생령님이 우리를 의문으로 하신다면(딤후 3:16) 우리에게 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딤후 8:11).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처럼 생령의 세례는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깊은 마음과 입술에 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 ‘영광의 문’을 읽고

1956년,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베르드의 살인부족 아우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려 죽임을 당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헌신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당한 교회와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땅에서 감히 편하게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한 짐 앨런씨.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안치내 그리스도를 위한 속물이라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는 다툼 세인트.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 받은 날이라고 고백한 로저 유데리안. 아내가 임신 8개월인데도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아우가 족에게 있던 에드 맥컬리. 한산도, 음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했던 피트 플레밍.

그리고 이들의 아내들도 믿음의 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들의 남편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남편이 순한 것으로 인해 아우가 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기뻐하였다. 이 사실이 나에게서는 아름다운 충격과 감명이다.

평소에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바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눈앞의 현실에 슬퍼하며 절망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 이들을 보며 나는 나의 믿음을 돌아본다. 그리고 내 영혼은 흔들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다. 자신의 이름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순위에 놓은 그들,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이 아우가 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인 줄 알고 순종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다. 사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소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용기와 비겁함, 우리의 사랑과 이기심, 우리의 정경과 악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잃어버려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감사하라(고후 4:7).

이들의 순교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헌신했던 것을 볼 때, 이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땅의 기조를 놓으시고 그 도랑을 정한 분께서 신이 그러질 위치를 영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축복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남정자 (집사, 1교구)

## “복음의 씨앗”

우리는 D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라는 말을 들으면 손을 잡고서 기쁨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축조전도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길을 가던 한 행인이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자, 그 행인은 얼굴이 무섭게 변하면서 큰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전도지를 던져버리고 가버렸다. 그 행인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 모두는 그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있다. 우리 팀이 어떤 기술학교에서 간중 및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 그후 우리는 그와 함께 축조전도, 노방전도를 하였는데 그 학생은 자진하여 믿지 않은 자기 부모와 친척집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그 어린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부모와 친척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학생의 눈은 감동으로 잠깐 젖었다. 하찮은 나로 하여금 이런 귀한 선교에 동참케 하시며 이런 학생을 통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의 부모, 친척을 전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려 한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선교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D국 사람들의 손과 눈이었다. 전도지를 받는 그들의 손은 정말로 귀하고 귀하며, 눈동자는 슬프고, 순수하고, 신하게 보였다. 전도지를 함께 읽으면서 아직 확실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입과 전도지를 받는 손이 정말로 복음을 갈급한 입과 손이 되기를, 눈이 되기를, 앞으로 살아 불타오르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한다.



강태영 (18교구 3지역)

## G국을 다녀와서 (14교구 1지역 팀)

❖ 여러 사역 중 특히 학교 사역이 인상적이었다.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 학교 수업 중이 웅했지만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전도지를 받았다. 그러자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시간을 10-15분 정도 배려해 주셨다고 하셨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교실에 있는 80-9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 우리가 찾았던 어떤 가정에는 라바불상들과 부처들이 액자에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우상신, 부처, 불상들을 버려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때 스스로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심에 감사했다.

조종훈 인주집사 (팀장)

❖ 많은 사역들 중에서 K지역 사역은 잊을 수 없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을 주민 몇 명 1시간 후에 돌아오는 연락이 있다. 일부 팀원들은 학교 사역을 위하여 학교를 찾았다. 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로 보내 주겠다고 선생님께서 약속하셨다. 곧 학생들이 찾아왔고 우리들은 그날 성경과 사영리로 숙소 마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오후 늦게 비가 왔지만 어른 몇 명이 찾아왔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찾아왔다. 숙소 내 복도에 의자를 준비하여 그들을 앉히고 복음을 전하였다. 밤이 늦은 시간에 비가 계속 오는데 여러 명의 어른들이 찾아오셔서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되었다. 주일에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보내 주시니 감사하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계획을 모른다.

고국석 집사

❖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총무관 직책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잘 계획해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선교사역에 임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교만을 허무시고 우리 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은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김영환 집사

❖ 나는 해외선교뿐 아니라 국내 전도조차 별 관심이 없었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교회에 출석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나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전도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다. 어찌하여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지 여쭙고 싶다. 나는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속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변함없는 믿음을,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 간구할 뿐이다.

김갑환 집사

### 이전 주 출몰하는 선교팀

| 기간                  | 선교지 | 팀        | 팀장  | 기간                  | 선교지 | 팀        | 팀장  |
|---------------------|-----|----------|-----|---------------------|-----|----------|-----|
| 7월 12일(화)-7월 20일(화) | B   | 대학부 21   | 김승곤 | 7월 12일(화)-7월 21일(수) | G   | 17교구 3지역 | 한민석 |
| 7월 13일(수)-7월 21일(수) | Y   | 대학부 22   | 정승규 | 7월 13일(화)-7월 21일(수) | J   | 6교구 2지역  | 김규석 |
| 7월 12일(화)-7월 21일(수) | G   | 17교구 5지역 | 김재홍 | 7월 14일(수)-7월 24일(목) | T   | 18교구 6지역 | 이인영 |
| 7월 12일(화)-7월 21일(수) | G   | 17교구 4지역 | 이효일 |                     |     |          |     |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 기간                 | 선교지 | 팀       | 팀장  | 기간                 | 선교지 | 팀        | 팀장  |
|--------------------|-----|---------|-----|--------------------|-----|----------|-----|
| 7월 6일(화)-7월 14일(수) | G   | 3교구 6지역 | 정경수 | 7월 7일(수)-7월 17일(목) | S   | 10교구 5지역 | 김경환 |
| 7월 6일(화)-7월 15일(목) | M   | 대학부 20  | 김해문 | 7월 7일(수)-7월 17일(목) | D   | 10교구 4지역 | 조영환 |
| 7월 7일(수)-7월 17일(목) | K   | 4교구 4지역 | 박원희 |                    |     |          |     |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 기간                 | 선교지 | 팀        | 팀장  | 기간                  | 선교지 | 팀        | 팀장  |
|--------------------|-----|----------|-----|---------------------|-----|----------|-----|
| 6월 28일(화)-7월 9일(목) | J   | 9교구 8지역  | 조종훈 | 6월 29일(화)-7월 10일(목) | D   | 8교구 4지역  | 이인원 |
| 6월 29일(화)-7월 9일(목) | J   | 17교구 7지역 | 김연익 | 6월 30일(수)-7월 9일(목)  | K   | 18교구 7지역 | 유성태 |
| 6월 28일(화)-7월 7일(수) | B   | 대학부 18   | 고승곤 | 7월 22일(화)-7월 10일(목) | M   | 대학부 19   | 박종철 |

\*선교기록의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영양기상 19살은 묵상하고

## 로렘나무 아래서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밝게 하신 땅을 두려움에 소망을 버리고 왔사오니  
외치는 목소리가 공허하며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혀가  
내 지팡이를 꺾었나이다.  
주로 인하여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치고 깨꾸러뜨리오니  
분함과 원망이 가득한 죄악을 내 속에 품고  
주를 뵈을 수 없음을 두려워하나이다.  
간구하건대 이 슬데없는 자로 행하지 마시고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 너는 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너는 나의 택함이라.  
티끌같이 연합하여 밝히고 부처지는 너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보일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사랑의 확증을 인함이라.  
소망을 잃었느냐?  
나 여호와와의 소망은 너를 택함이니  
나니하였으니 너의 피가 벌써부터 심판을 받았으리라.  
나의 은혜가 임한 자  
나의 능력이 내 손에 쥐여졌으니  
너는 오로지 나의 사랑을 전하고 증명하라.  
세상 죄 앞에 내가 두려워 할 수 없은  
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에게 임한 고난과 필박을 보며 내가 보좌에서 일어날 것이며  
상처로 연합할 때 내 눈물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사랑 경연 앞에 내가 승리 할 수 없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갑갑한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니 나의 떡과 잔을 마시고 강건하라.  
세상 날 날개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진우(청년1부)

## 천국을 소유한 아이들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부르시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 18:16b).

농구공을 들고 집 옆에 초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농구를 하고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운동장에 3명의 어린이가 부매망을 들고 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권도장을 땀방이 천 터라 멀리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자 숨을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넷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 이 때구나.' 저는 순간 포착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죽게 되었지.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 믿을래?  
(잠시 침묵)

아이들: 네.

영접 기도를 얼마나 또박또박 하던지, 그후 칠준이란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칠 준: 아버지,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 어 그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때다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엄마께 기껏말하고 태권도장 땀방이 천 게 마음에 걸렸나봐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저 기도했어요" 하는 아이들을 볼 때, 나의 믿음 있는 모습이 오히려 도리어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는 이렇구나. 단순, 순수한 믿음.

칠준이는 7살 때까지 교회에 다녔고, 이름이 모세였대요. 방 모세. 근데 지금은 가 족이 전부 다 불교라고 그러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니 짐작만 했어요. 한윤이는 어제부터 교회에 선물을 타려고 나갔대요. 한윤이는 한윤이의 형이고요. 저는 복음이 전해졌는지 다시 확인을 했죠.

나: 너희들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거 같애?

아이들: 천국이지.

나: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한 번 너희 마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실 꺼야.

이 아이들 셋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좋겠어요. 나에게 운동할 마음을 주시고, 운동장으로 이끄시고, 그 가운데에도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한베로 (대학부림장)

### 전도단동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승용차의 결함을 정비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다녀온 남편이 실금병글하며 천관문을 들어선다. 전도하고 왔다면 이번 주에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이곳저곳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차의 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만남을 이루셨다. 시운전을 하던 카센터 정비기사님이 차에 틀어 놓았던 찬송가 소리에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기로 남편과 약속을 한 것이다. 후에 남편과 그곳을 찾아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그분이 나의 천정 근처에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반가웠고 같은 교구가 되어 더더욱 반가웠다. 지금은 그분의 아이들도 유년부와 유치부에 잘 나오고 있다.

남편이 근무지를 옮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식기도 모습에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어 주었다. 그 거래처 분은 쉬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등록하여 지금은 새가족부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계신다. 남편은 그분들께 매주 전화하며 주일에는 가능한 교회에서 얼굴을 비치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주변도 없는 무뎌뎌한 남편을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신다. 남편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 전도하려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남

편이 전도한 영혼들은 주위의 친지와 가족들의 기도로 이미 준비가 된 영혼이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는가. 정비기사님은 오랜 시간 형수님의 기도와 권면으로, 거래처 분은 목사님이신 형부와 언니의 기도로 준비된 영혼이었던 것이다. 누가 구원 받을 예비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a).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씨앗을 뿌려야 할 농부로, 물주고 가꾸는 농부로, 익은 곡식의 추수꾼으로 각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도 하시고,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과 경계함으로 권하게도 하시며, 기쁨으로 거두게도 하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이며 키우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었음을 믿고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지금도 전도대상자들을 놓고 어떻게 다스릴지 함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매우 문자 메시지로 성경말씀을 보내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런 몸 같은 우직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등록된 두 가정이 전리의 뒤에서 거듭난 천국 일꾼으로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한다.

이상국 (집사, 4교구)

교회탐방 ㉔ 할렐루야 찬양대

여호와 의 이름을 찬양하라

군영미가 주는 아름다움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다. 안정감은 하루나 이틀만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다짐 만큼 다져지고 꺾을 만큼 꺾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결과이다. 1954년에 조직되어 오늘까지 만경강은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만났다. 이 찬양대가 주는 완성도 높은 군영미를 충현의 성구들과 나누고자 한다.



4. 할렐루야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보람이 있겠군요?

“저는 실질적 심부름꾼으로서 찬양위원회의 지침을 전달하고 ‘새롬’지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는 등 찬양대 구성을 돌보면서 초대교회와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 한마디로 우리 찬양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창되는 모든 곡들이 말씀위주여서 아주 좋다.” (총무, 이세영 안수집사)

5.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를 하셨다는데 어떤할수록 더욱 찬양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늘 음악적 관심이 컸다. 최근에는 악보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쉽지 않은 악이 그전에 있던 에피소드가 많다. 그러나 악보를 읽기엔 때론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공교한 찬양을 드러게 된 것이 기쁘다. 악보를 읽기 하는 것은 찬양에 완성도를 높이기엔 안정맞춤이다. 어떤할수록 매력 있는 것이 찬양이다.” (부총무, 김성필 집사)

6. 189명이 넘는 찬양대원들이 화조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역할은 누가 하지요?

“기초대원과 신입대원, 장년층과 젊은층간에는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에서 배가 자란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신입대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어른들은 젊은이를 격려하고 젊은이는 어른들을 섬긴다. 그래서 찬양이 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랑스러운 할렐루야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한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또 하나의 따뜻한 사랑이 오가는 집이다.” (솔로리스트, 장경희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의 빛깔은 한 마디로 군영과 조화이다. 음악과 말씀이, 장년과 청년이, 기초대원과 신입대원이, 겸손과 자긍이 오묘한 군영미와 조화미를 연출한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견고한 원천이다.

(관리/편집실)

1.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성과 찬양대장으로서의 일과된 신념이 어떤 것인지 있을까요?

“3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인원 189명, 오케스트라 35명)에는 오랜 시간 봉사한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겸임 위주의 집단이 될 수도 있음에 유념한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 신령한 중심의 신선한 찬양대가 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모색한다. 한 예로 욥시라도 대원들이 교만악과 10가지의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제목을 두고 늘 자성(自省)의 계기로 삼는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차진숙 장로)

2. 할렐루야 찬양대는 음악과 말씀의 조화를 강조한다는데 찬양대로서와 영적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찬양대 안에 ‘경건회’를 운영한다. 매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읽기를 한다. 드디어 작년 5월 중순에 7년 여에 걸쳐 성경 일독을 하였다. 그리고 성경암송대회를 열기도 하고 재작년에는 요한복음 필사하였고 올해는 잠언과 고린도 전·후서를 필사하고 그것을 할렐루야를 앞에서 전하여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다(원목 사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음악성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일에 중점을 둔다.” (부대장 박성진, 안수집사)

3. 조화를 강조하는 찬양대에서 부대장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어머나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성이 뚜렷한 여성 대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을 다독여주는 섬세한 역할이다. 대원들은 잘 해야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그런 열정을 잘 응화시키는 것이 부대장의 몫이다.” (부대장, 김효순 권사)

“남자대원들이 정제세를 갖도록 잘 유도한다.” (박성진 안수집사)

연습시간

토 오후 5:00~7:00

나사렛을

주말 오전 9:30~10:35

나사렛을

주말 오후 12:40~13:40

할렐루야를

다음 주일 찬송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들 주일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않고 오직 천과 같이 이세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님”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1,2절과 3,4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2절: 이 세상 이별할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에 가는 것이 소원이야 세상 일은 ‘헛된 것’이기에 세상 일에 도취되어 진정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사함으로 천군을 해한다.

3,4절: 불 같은 시험 많지만 내세지 말아야 한다. 소금과 침묵은 불을 통과해야만 얻어진다. 즉 믿음의 순수성은 그를 단련시킨 시련의 크기에 달려있기에 믿음으로 온전히 천군을 해한다.

헛된 세상 일에 가치를 두지 말고, 화살같이 빠른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진리의 말씀에 붙들고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해야 한다. 이처럼 귀한 삶을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찬송을 묵상하여 예배를 준비하자.

(찬양위원회)

함께 하는 이름

신현상 은퇴장로 (88세, 10교구) 신현상 은퇴장로님은 노환으로 인해 케페르 중상이 있어서 현재 용인에 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코에 호스를 연결해서 산소호흡기로 호흡하시고, 목에 호스를 연결해 가래를 빼고 음식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스를 교체할 때 상당한 통증을 잊지 못한 오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찬송가를 부를 때 비록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손가락으로 지휘하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현상 은퇴장로님이 마지막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새 · 가 · 족 · 을 · 형 · 영 · 합 · 니 · 다 |     |    |      |         |      |     |    |      |         |      |     |    |      |         |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1706                              | 유순옥 | 1  | 청년부  | 박성희(1)  | 1741 | 오연미 | 12 | 청년부  | 윤정희(12) | 1776 | 박혜련 | 19 | 대학부  | 김영옥(3)  |
| 1707                              | 김희배 | 3  | 청년부  | 박성희(1)  | 1742 | 조은희 | 12 | 소양부  | 정영선(12) | 1777 | 이은희 | 19 | 대학부  | 공정자(2)  |
| 1708                              | 김경희 | 2  | 소양부  | 김경희(2)  | 1743 | 안은자 | 13 | 소양부  | 박영희(13) | 1778 | 문은희 | 19 | 대학부  | 유김순(8)  |
| 1709                              | 김준순 | 2  | 소양부  | 황정숙(2)  | 1744 | 안은자 | 13 | 청년부  | 박영희(14) | 1779 | 박혜련 | 19 | 대학부  | 최두희(15) |
| 1710                              | 김진희 | 3  | 청년부  | 박성희(1)  | 1745 | 전희진 | 14 | 청년부  | 박영희(14) | 1780 | 홍은희 | 19 | 대학부  | 박영옥(2)  |
| 1711                              | 김진희 | 4  | 청년부  | 김주희(4)  | 1746 | 이영희 | 19 | 외선부  | 이숙희(2)  | 1781 | 김준희 | 19 | 대학부  | 홍성희(16) |
| 1712                              | 미현숙 | 4  | 청년부  | 박성희(1)  | 1747 | 김현희 | 19 | 대학부  | 이영희(1)  | 1782 | 김준희 | 19 | 청년부  | 최민희(17) |
| 1713                              | 유정숙 | 5  | 청년부  | 이영희(5)  | 1748 | 김현희 | 19 | 청년부  | 김영옥(5)  | 1783 | 서은희 | 19 | 청년부  | 노은희(18) |
| 1714                              | 한희희 | 5  | 청년부  | 이영희(5)  | 1749 | 이영희 | 19 | 소양부  | 정영선(19) | 1784 | 국지희 | 19 | 청년부  | 한영희(19) |
| 1715                              | 박은희 | 5  | 청년부  | 박영희(5)  | 1750 | 박은희 | 19 | 청년부  | 정영선(19) | 1785 | 김준희 | 19 | 청년부  | 한영희(13) |
| 1716                              | 전희진 | 5  | 청년부  | 정영선(5)  | 1751 | 이영희 | 19 | 외선부  | 문정희(19) | 1786 | 서은희 | 19 | 청년부  | 김현희(19) |
| 1717                              | 나희  | 19 | 외선부  | 박성희(1)  | 1752 | 김영희 | 19 | 소양부  | 정영선(19) | 1787 | 박은희 | 19 | 청년부  | 장우희(19) |
| 1718                              | 박수희 | 5  | 청년부  | 김희배(5)  | 1753 | 안은희 | 19 | 대학부  | 이영희(19) | 1788 | 이영희 | 19 | 청년부  | 김종희(2)  |
| 1719                              | 유선영 | 7  | 외선부  | 김영희(7)  | 1754 | 박은희 | 19 | 대학부  | 박영희(19) | 1789 | 이영희 | 19 | 청년부  | 최영희(19) |
| 1720                              | 이은희 | 7  | 청년부  | 박성희(1)  | 1755 | 유정숙 | 19 | 중등부  | 이진희(19) | 1790 | 한지희 | 19 | 청년부  | 박성희(12) |
| 1721                              | 김희배 | 8  | 청년부  | 박성희(1)  | 1756 | 전희진 | 19 | 대학부  | 이진희(19) | 1791 | 김준희 | 19 | 청년부  | 김영희(12) |
| 1722                              | 박영희 | 8  | 청년부  | 김영희(8)  | 1757 | 전희진 | 8  | 고등부  | 이진희(19) | 1792 | 안지희 | 19 | 청년부  | 라영희(1)  |
| 1723                              | 이영희 | 8  | 청년부  | 김영희(8)  | 1758 | 조영선 | 19 | 고등부  | 조영선(19) | 1793 | 박은희 | 19 | 청년부  | 이영희(19) |
| 1724                              | 김경희 | 9  | 청년부  | 한영희(9)  | 1759 | 유정숙 | 19 | 고등부  | 박진희(19) | 1794 | 이은희 | 19 | 청년부  | 한영희(19) |
| 1725                              | 김영희 | 9  | 소양부  | 한영희(9)  | 1760 | 김희배 | 19 | 대학부  | 이진희(19) | 1795 | 국지희 | 19 | 청년부  | 김진희(19) |
| 1726                              | 이영희 | 9  | 청년부  | 박성희(1)  | 1761 | 김현희 | 19 | 대학부  | 최영선(19) | 1796 | 이은희 | 19 | 청년부  | 김영희(12) |
| 1727                              | 김준희 | 9  | 청년부  | 박성희(1)  | 1762 | 이영희 | 19 | 대학부  | 이영희(19) | 1797 | 이은희 | 19 | 청년부  | 최영희(19) |
| 1728                              | 김희배 | 2  | 청년부  | 박성희(1)  | 1763 | 김현희 | 19 | 대학부  | 김영희(19) | 1798 | 김영희 | 19 | 청년부  | 김영희(19) |
| 1729                              | 김희배 | 9  | 청년부  | 한영희(9)  | 1764 | 김영희 | 19 | 대학부  | 김영희(19) | 1799 | 박영희 | 19 | 청년부  | 이영희(19) |
| 1730                              | 신현희 | 10 | 청년부  | 차희진(10) | 1765 | 이영희 | 19 | 대학부  | 김영희(19) | 1800 | 전희진 | 19 | 청년부  | 송영희(12) |
| 1731                              | 김준희 | 10 | 청년부  | 차희진(10) | 1766 | 최영선 | 19 | 대학부  | 이진희(19) | 1801 | 조영선 | 19 | 청년부  | 김영희(12) |
| 1732                              | 최영선 | 10 | 청년부  | 김영희(10) | 1767 | 김영희 | 19 | 대학부  | 김진희(19) | 1802 | 이은희 | 19 | 청년부  | 김영희(12) |
| 1733                              | 신혜옥 | 11 | 청년부  | 박성희(1)  | 1768 | 서은희 | 19 | 대학부  | 박진희(19) | 1803 | 박은희 | 19 | 청년부  | 최영희(17) |
| 1734                              | 조영선 | 11 | 소양부  | 박성희(1)  | 1769 | 나희  | 19 | 대학부  | 윤정희(19) | 1804 | 박은희 | 19 | 대학부  | 최영희(17) |
| 1735                              | 이은희 | 11 | 청년부  | 김영희(11) | 1770 | 김은희 | 19 | 대학부  | 조영선(19) | 1805 | 김영희 | 19 | 외선부  | 김영희(19) |
| 1736                              | 김영희 | 11 | 청년부  | 김영희(11) | 1771 | 김은희 | 19 | 대학부  | 박영희(19) | 1806 | 김은희 | 19 | 외선부  | 시경희(2)  |
| 1737                              | 박은희 | 12 | 청년부  | 김영희(11) | 1772 | 김은희 | 19 | 대학부  | 박영희(19) | 1807 | 김은희 | 19 | 외선부  | 시경희(2)  |
| 1738                              | 김진희 | 12 | 청년부  | 박영희(16) | 1773 | 박은희 | 19 | 대학부  | 박영희(17) | 1808 | 조영선 | 19 | 대학부  | 윤정희(12) |
| 1739                              | 유정숙 | 12 | 청년부  | 박영희(12) | 1774 | 박은희 | 19 | 대학부  | 박영희(18) | 1809 | 유정숙 | 12 | 청년부  | 윤정희(12) |
| 1740                              | 정영선 | 12 | 청년부  | 윤정희(12) | 1775 | 유정숙 | 19 | 대학부  | 박영희(19) |      |     |    |      |         |

※ 찬양위원회의 한 가족이 비록 환시하는 본은 본당 2008년 새가족 등록증도 오시기 바랍니다.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 협력서곡사 허요셉 (이장민)